“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여름공동체생활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7월 25일(목)~28일(일)
  주제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꾸리기학교 여름여행이 8일(월)부터 2박 3일간 있습니다.
- 제 45차 공동체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지역별 사랑방 전반기 방모임은 이번 주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용신 장로 · 진정행 권사 가정 (감사)
나송주 집사 · 이윤희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7 호
2024년 7월 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빛과 소금을 따라서

군대에서 선임이 물었습니다.

"너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꼭 교회에 가야 하는 거야?"

전 "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혀를 내두르는 그의 모습을 보니 더 말했다간 교회란 곳에 영영 정을 뗄 것 같았습니다. 선임은 재차 물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대답을 듣게 된 선임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한 호오를 별로 표출하지 않는 드문 사람이었지만, 그 대화 중에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매주 빨간 날에 쉴 수 없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내야 하며, 때로는 자기 욕망 추구를 지양해야 하고, 봉사나 헌신이 필요한 삶의 형태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 이 모두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젊은이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마도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 것은, 대화의 흐름이 조심스럽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는 방향성 아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주변 기독교인에게서 받은 상처를 되갚으려 들거나, 해명을 듣거나 이해해보려는 노력 없이 선입관 안에서 욕하기만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대화 이후에는 생각해보니 사뭇 기독교는 생각보다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조차 흔히들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형태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오죽할까요. 더구나 재미를 추구하기 마련인 젊은이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세상이 재미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다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기독교는 복음에 의한 이웃사랑의 삶을 지향하기에, 사회적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원리원칙을 지키거나 어떤 비도덕적인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빚을 수 있고, 몸을 담은 사회 집단 내에서 백안시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구는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유무형의 압박이 가볍지 않은 사회입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그렇게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에 헌신된 믿음의 삶은 더욱더 뜻깊고 빛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어렵고 가혹한 때에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거리에 나섰고, 신앙이 시키는 바에 따라 불의에 맞서곤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손잡았더라면, 불이익은 커녕 세상의 안락함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보고 그 분의 의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열 두명의 사도가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전승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 원수를 아들로 삼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손양원 목사 등 신앙의 삶을 '손해'라던가 '누릴 수 있는데 잃은 것'으로 여긴다면 절대 보여줄 수 없었던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선임은 유관순이나 윤동주 등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놀랐습니다. 그 밖에도 역사적 위인들이 신앙의 뜻을 품고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희생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노라고, 거기엔 정직히 감사해야겠다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저 또한 그의 그런 성숙한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없이 열악했던 군대 안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짊어진 빛과 소금의 영향이겠지요.

믿음의 삶으로 얻는 무게를, 더 많은 은혜로 가벼이 가져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과 사회에 인정받는 빛과 소금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
<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94장 304장 293장
기도 :
성경 : 호세아 2:14-23
제목 :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1. 그날에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What)
 1) 그 날에(6회) '나'(20회)와 '너(9+5회)의 관계를 말하다.
 2) 주님과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여 말하다.<16,19-21>
 3) 그날에 주님께서 너와의 혼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것이다.

2.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Why)
 1)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언의 방법이다.<1:2>
 2) 북왕국의 멸망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13:6>
 3)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용서의 사랑을 전하라.<3:1-2>

3.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How)
 1)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혼인관계를 고백하자.(약속, 사랑)
 2) 범죄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3) 범죄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될 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역할공동체 그리고 여름공동체생활

7월입니다. 역할공동체가 구성되고 개인적으로 바빠져서 2년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톡방을 기웃거리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대충만 보고 지냈습니다. '나처럼 이름만 있는 이들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버겁겠다, 이분은 맡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바쁘던 일이 마무리되어 역할공동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임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지난 시간들을 잘 모르니 살짝 겉도는 느낌도 있고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바이블데이에는 몸으로라도 좀 일을 해 볼까 했는데 교육공동체에 새싹사랑방 식구가 세 명이나 있다고 방으로 가라고 보내버리는 바람에 또….

여름공동체생활이 다가오고 모여서 이런저런 생각들, 마음들을 나눕니다. 듣고 말하는 사이 마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오갑니다. 여름공동체생활에 참여하는 건 늘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을 떠나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사랑방으로 가고 나서도 핑계는 계속 생겨납니다. 이전에 공동체생활을 함께했던 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허전함, 왜 이렇게 되었나 뭐가 문제일까 하는 회의 등등. 진짜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찾아보려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공동체생활이 시작되면 '오니까 참 좋다. 크게 좋은 일이 날 기다릴수록 꼭 더욱더 오기 싫어지더라. 오기 싫은 마음이 커질수록 꼭 와야겠다.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핑계 찾기는 아예 포기하고 기다려보려 합니다, 이전에 여름공동체생활이 준, 아직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따듯함 뭐 그런 것들과 함께.

새싹사랑방 정승희 집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마가복음 11 : 28-30	인도자
*예배의 찬송	2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요한일서 1 : 9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70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사무엘하 5 : 1-5	설교자
성가대 찬양	521	따뜻한사랑방
설 교	"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다윗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97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38(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다윗

세 번의 기름부음. 다윗은 일생동안 세 번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서 처음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유다지파들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많이 기름부음 받았고, 이것은 왕으로서 훈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목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면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진정행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장마 기간 매일 있는 비 예보에 요즘 한창 재미를 붙인 축구, 자전거 타기, 보리수 따먹기 그리고 산책이랑 물총놀이를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때때로 한나절 비가 그치고 반가운 햇볕과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바깥놀이를 전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요일 오전에 다녀온 귀락마을 산책은 참 근사했습니다. 논을 보러 가는 길에서 학교에서는 못 보던 색다른 여름 꽃들을 만나고 막 열매를 맺은 밤나무의 아기 밤송이를 보았고 향기로운 칡꽃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논을 본 순간 지음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바람에 일렁이는 초록색 벼들의 군무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논 가까이 다가가서 실잠자리, 우렁이, 우렁이 알, 메뚜기, 소금쟁이, 왜가리, 흰나비, 개구리밥을 발견하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산책 마지막 무렵엔 개천가에 잘 익은 빨간 산딸기를 따서 대여섯 개씩 맛보았습니다. 꾸러기들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고 처음 본 것이 많은 산책이었어요.

금요일에는 기대하고 있던 물총놀이를 공동체 마당에서 했어요. 운동장 담벼락에 케첩 통 물총으로 낙서를 해보고 나란히 세워둔 물병을 물줄기를 쏘아 쓰러뜨리기도 하고 옷걸이에 신문지를 걸어 다함께 물총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총싸움이지요! 서로에게 물줄기를 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옷이 다 젖도록 서로 물을 뿌려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신나는 놀이 속에 꾸러기들의 우정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에서는 평화교육과 환경교육을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평화교육을 하는 해 입니다. 평화교육의 주제는 세계의 평화, 남북의 평화, 나와 내 주변 이웃을 향한 평화 등 할 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올 해는 지난 주 어린이 예배 시간에 중국의 상황을 전해 듣고 믿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애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주 어린이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을 통해 참 평화란 세상의 기준으론 함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갈등을 화해시키시고 서로를 존중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요일 성서일기 시간에 한 학부모님께서 참여하고 계신 의의나무 사역을 통해 평화의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눈이오나 비가 오나 교회의 전 교인인 4~5 가정, 총 20여명의 교인들이 매주 의정부역에서 150인분의 한끼 식사를 나눔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며 "내 것을 먼저 내어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현대의 오병이어 이야기처럼 평화교육 시간을 통해 사랑방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속초로 종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학기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 짓고 그 간을 정리하는 여행입니다. 실컷 놀기도 하고, 맛있게 먹기도 하고, 서로 엮여나가는 추억을 한 차례 더하는 기간입니다. 비소식에 걱정한 것도 무색하게도, 일정 중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을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첫 날에는 뮤지엄x에서 AI를 활용한 전시물을 감상하고, 숙소에서 웃음 가득한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많은 멋쟁이들이 벼르고 있던 축구도 마음껏 하고, 물치해수욕장에서 학년별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신앙의 길을 짚어보는 뜻깊은 공동체훈련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워터피아에 가서 실컷 물놀이를 하며 한동안 더위를 잊었습니다. 대청소와 피드백까지 거쳐간 멋쟁이들의 얼굴은 피곤해보이면서도, 한 편으론 후련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멋쟁이총회를 통해 임원직을 내려놓은 멋쟁이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2학기 회장에 고여진, 부회장에 김재언 멋쟁이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방학동안 휴식하면서, 다음 학기를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학부모 면담 기간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만남 속에서 멋쟁이들의 인격적인 성장에 대해 소개할 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좋은 만남들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그저 감사

몇 년 전 피부병으로 곤욕을 치룬지라 습도와 온도가 높은 요즈음 모기에 물리고 땀띠가 생기거나 풀독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 피부에 변화가 생기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크게 번지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한 2년 동안 호되게 고생을 했었다. 갑자기 번진 피부발진 가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잘 수도 누울 수도 없어 참다못해 병원에 보름동안 입원 한 적도 있었다.

세상 이치가 늘 그렇듯이 고생을 하고 얻은 열매도 제법 있다.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피부는 2주일 길게는 6개월 순환주기를 거쳐서 회복이 된단다. 괴로워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이 기억나지만 기적처럼 상처가 낫고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이제 피부에 탈이 나면 예민하게 반응은 하지만 '괜찮아 나을 거야.'하고 스스로를 토닥인다.

두 번 째는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 더 얻은 것이다. 내가 과연 전쟁의 아픔을 알까?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을 과연 내가 알까? 모른다. 그들의 아픔을 결코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좀 아파보고 나니 아픈 사람들의 처지는 조금 알겠다. 특히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심정은 조금 더 알겠다.

요즘도 가끔 내 손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다. 상처 없이 멀쩡한 손을 들여다보며 '감사하다. 감사하다.' 되뇐다.

동병상련, 예수님만큼 그 말의 무게를 잘 아는 이는 단연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그저 얼마나 감사한지……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태일 목사
찬 송 : 200장, 204장
성 경 : 마태복음 7:24-27
말 씀 : 반석위에 지은 집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가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주변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
   공동체학교들의 1학기말 정리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습기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바람이 거세어 나뭇가지들이 많이 부러지고 호박꽃도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큰 비가 오지 않아 별다른 피해 없이 장마기간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옥수수들이 강한 바람에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며 벼 농사를 하시는 농부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 없이 이 장마기간을 잘 넘기길 바랍니다.

공동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성실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멋쟁이들이 종강여행을 위해 무림리까지 오고 갈 때 차량지원도 해주시면서 학기 마지막까지도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름공동체생활 준비를 하기 위해 주변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도 마음도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